



韓國 包裝水準 競爭力 未達 包裝專門 研究機關 獨立 必要

韓國包裝學會 會長·서울大 教授
會長 辛 東 韶

☞ 칼럼筆陣 ☞

- 신동소(本호필자 한국포장학회장·서울대교수) 6·9 號
- 옥선종(한국물류학회장·명지무역대학장) 7·10 號
- 안현영(본지 편집인·한국포장물류연구소장) 5·8 號

1. 包裝은 商品의 生命力·物流의 始發點

포장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하고, 하나의 전통을 지니면서 발전하여 왔다. 우리나라 전통포장은 쓰여진 질감, 알맞은 포장, 환경친화, 심미성 등이 슬기롭게 조화된 발군(拔群)의 포장문화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보자기 문화는 예술의 극치로서, 조각천을 알뜰히 살리고, 색의 구성과 미적 조화가 균형을 이루어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포장기술인 것이며, 짚을 소재로 한 계란 꾸러미는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기능을 살린 포장과학의 결정체임이 예증(例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경제개발의 시동이 걸린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 힘입어, 산업구조는 1차 산업에서 2,3차산업으로 개편됨에 따라 포장산업의 입지가 조성됨으로서 중진권 이상 수준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무국경, 무한 경쟁시대에 있어서의 선진국 포장수준에는 크게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경쟁에 있어 상품의 생명력(生命力)이요, 물류의 시발점(始發點)인 포장의 세계수준화를 위해서는 업계산업(業際産業)의 효율화와 포장개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다.

2. 國際競爭을 爲한 包裝研究 課題 山積

우리나라 포장산업은 광복이후, 불모지에서 태동기를 거쳐, 1964년의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회 창립에 이어, 1970

년에 3개 포장단체가 통합되어 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가 설립되면서 국내 산업디자인 및 포장개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여 온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다.

금년은 WTO 출범으로 세계의 경제질서가 재편되는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의 격동기이며, 우리나라가 12대 세계 무역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 세계경제를 선도해 나갈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국내 포장산업은 그 시장규모가 GNP의 1.8%~2.0%를 차지하여, 4조5천억원에 달하고, 금후 고도 산업사회로 옮겨감에 따라 포장의 기능과 경제적 가치는 막중하므로 소위 포장산업은 국력의 바로미터임을 웅변하고 있다.

포장의 기본기능인 상품의 보호성, 편의성 및 판촉성의 차원을 넘어서 유통정보매체성과 환경친화성의 영역으로 확대 되었으며, 다원화 사회로 지향되는 추세에 맞추고 선진기술보호주의와 지적소유권 등에 대비하여 우리의 상품이 살아남기 위해서 포장소재, 포장설계, 포장기술, 포장물류연구등 산적해 있는 과제를 연구개발할 전담기구가 보다 절실하여, 그 여망에 따라 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는 1992년에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개편 된 것이다.

3. KIDP 包裝開發 後退·包裝研究人力 分散은 遺憾

그런데 이런 중요 국면에 있어, KIDP의 개편과 더불어 포장관련기구가 소외되었다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수 없다.

많은 포장인의 우려는 종래의 공업포장개발부가 더 확대 강화는 고사하고 일개 과로 전략, 인원의 대폭감소, 연구개

발 추진의 일관성 부족, 국가 예산으로 길러온 포장연구인력의 도태 분산, 전문성과 무관한 인력교류, 포장재 물성시험 및 식품포장분석 등 기능의 축소현상은 포장개발원이란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 더욱이 오늘날의 포장산업의 최대 이슈는 환경이며, 환경보전을 떠나서 포장산업은 존재할 수 없는 격동기에 있어 포장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필요한 때에 말이다.

4. 包裝專門 研究人力의 結集과 研究活性化를

KIDP의 설립목적은 그 근거 법률인 산업 디자인·포장진흥법에서 정한 디자인·포장의 연구개발과 진흥에 있으며, 그의 성패는 운영관리에 달려있다. 그 운영의 주체는 연구원이다.

KIDP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포장업무의 효율화, 연구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연구자의 자율적인 발상을 허용하는 연구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연구원은 전문적인 기초지식을 겸비하여, 업무의 애착과 사명감을 갖고 도전과 신명을 바칠 소명의식을 갖도록 하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근래 KIDP의 포장 연구개발 기능이 거의 없어지고, 대신에 진흥분야 그것도 산업디자인의 진흥과 행정지도만을 주력하는 양상이라면, 결국 포장연구개발 기능의 포기로 보이며, 취약한 포장기반의 선진포장전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될수 없게 된다.

국내 디자인 교육도 거의 미술대학에 속해 있어 포장재료학이나, 포장기술은 거의 도외시한 시각디자인에 중점이 되고 있으며, 산업디자인에 엔지니어링의 실제교육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포장기술과의 연계와 응용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포장분야의 전문성과 수준 높은 연구원이 없는것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포장전문 연구인력의 양성과 이를 결집시켜 포장 연구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KIDP가 포장개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요한 과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치는 과제도출 절차가 요구된다고 본다. KIDP는 포장분야에 있어서 UR, GR, 및 TR의 새물결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된 단체 및 업계

의 공감대 형성과 각고의 노력으로 업계를 건설적으로 리드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다. 상품의 디자인과 포장의 관계는 뗄 수가 없다. 마치 양 수레바퀴와 같으나, 오늘날의 근대 상품의 포장은 수레의 원동기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상품은 최후에 포장으로 생명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포장이 잘못되면 제품의 모든것을 잃는다. 포장기술은 알파요 오메가이다. 포장의 소재, 소재의 물성, 보호성, 경제성, 환경 및 포장기계등 기초공학의 바탕위에 첨단과학을 응용한 소위 종합적 학문의 집대성이며, 업제(業際)산업이다. 디자인은 한 나무에 관점을 둔다면, 포장은 나무가 모인 숲에다 시야를 넓혀야 한다. 그러므로 총체적으로 추진할 포장기관의 기구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5. 大本은 包裝研究 獨立機關 設立이 必要

오늘날의 국제 포장 교류에 있어, 세계포장기구(WPO), 아시아포장연맹(APF) 및 각급 포장재 생산자 단체와 긴밀한 유대 및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산학협동 사업으로 포장 관련 기관지 발간, KS 규격조사, 세미나 개최, 우수상품포장전, 산학 학술교류, 정보교환, 포장자재 통계자료 발간, 물류 조사업무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포장산업은 미래가 아닌 바로 내일예의 도전을 위하여 포장소재, 포장기술의 개선, 생산·물류및 소비의 합리화에 의한 국가 경제발전에 관한 연구·조사와 관련된 인재양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오늘의 유통경제사회에 있어서는 포장의 표준화, 적정기준의 조사, 소비자 포장과 관련하여 소비자 포장의 표준화, 포장폐기물에 관한 조사·연구, 특히 해외포장현황조사, 해외포장 문헌의 수집, 포장의 생자원, 포장폐기물의 자원화, 포장시스템의 연구, 포장경제연구 그리고 포장기계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가 시급하다.

우리 포장인은 옛 조상의 슬기를 계승하고 포장기술의 심화·발전을 위하여 진지한 자기성찰과 변혁의 노력으로 포장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역사의 주춧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일의 우리나라 포장의 진흥과 상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산업의大本(大本)은 포장전문연구 독립기관 설립이 요망되고있다는 사실이다.